

<국문요약>

이 글은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중산계층의 성격과 역할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중국 시민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의 통제 및 관리자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구와 단체회원들 사이에 통신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시민단체들은 비조직화된 경제주체들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는 이들을 쉽게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회 및 경제 단체들은 이전에 국가기구가 전담하던 일들 가운데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정부 기관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중국 시민사회는 형성중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 정책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에서 나타난 중요 현상 가운데 중산계층의 성장이다. 중산계층의 확대뿐만 아니라 중산계층이 분화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계층의 분화 및 유동성의 증가는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시키고 다양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시민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중국 중산계층이 개혁개방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이 차츰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중산계층이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중국 시민사회 발전은 이러한 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상당부분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시민사회, 중산계층, 성장, 발전

최 정 진 (Choi, Jeong-jin)

(E-mail : 13cjj@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09년 7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8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중국사회과학원

현직 : 한남대학교 강사

I. 머리말

중국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가 정치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1989년 6월 천안문사태를 겪으면서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천안문사태는 ‘시민사회’¹⁾라는 개념을 중국연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경제적 자유화의 결과이자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천안문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발적인 사회행동의 성격과 중국 민주화운동의 실패원인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정치적 자유화를 포함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던 소련 및 동구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인 침체와 정치, 사회적 혼란에 빠진 반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던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오히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정당성이 강조되거나 급진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적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시민사회론은 다시 중국사회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영경제, 외자기업 등 비국유기업의 빠른 성장, 파룬공(法輪功) 사건, 노동자 및 농민들의 항의활동 증가, 부패문제의 증가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의 약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다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과거와 같이 직접적인 통제가 힘들어진 사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1) 1991년 4월의 아시아학회 연차대회에서 한 패널이 시민사회를 주제로 삼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학술모임이 열렸고, 1993년에는 *Modern China*, Vol. 19, No. 2.(April 1993)가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을 특집으로 다뤘다. 중국 양안 모두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대륙에서 활발했다. 그에 관한 소개는 『中國社會科學』(香港) 총 4기(1993. 8)와 대륙 안과 밖의 논의를 비교한 Shu-Yun Ma, "The Chinese Discourse on Civil Society," *The China Quarterly*, 137 (March 1994) 참조. 특히 타이완(臺灣)의 논의에 대해서는 『當代』 제47기(1990.3)의 시민사회 특집을 참조.

한 새로운 방식의 하나로 시민사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외국의 중국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정치학, 사회학자들도 시민사회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王名等 2001; 俞可平 2002).

그런데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²⁾는 아직 초보적인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시민사회 개념의 모호성이다. 이 개념이 형성된 서구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다른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갖는 중국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중국에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유용한가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는 중국사회의 특수성이다.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의 사회에 통제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해 자주성을 갖는 사회공간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개념정의와 현실 모두에서 커다란 벽에 부딪힌다는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이미 봉건적 전제국가도 아니고, 계획경제에

2) 연구 초기에는 시민사회 존재 여부를 따지는 초보적인 작업이 이루어졌고, 점차 일부 사회단체 조직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일부 이익단체와 기층수준의 각종 사회단체의 조직이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에 중점이 주어졌다(김영진 1998; 백승욱 2001; 하도형 2003; 박광득 2004; Pearson 1994; 이동진 2000; Jeong 2000; 이민자 2001, 2009; 박홍순 2008) 최근에 중국의 시민사회 자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만에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룬 글이 나오기도 하였다(錢健軍, 1993) 그러면서도 이제까지는 전반적인 국가와 사회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이론적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들의 관심도 대부분 시민사회 조직의 존재와 자율적인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라는 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국가와 사회의 분리 또는 다른 형태의 결합에 관심을 두면서 중국사회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Oi 1995; Pearson 1994; Brook 1997; White 1996; He 1997).

기초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다. 이미 시장경제로 전환하였고, WTO 가입으로 경제적으로는 전면적인 대외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자주성'의 정도를 둘러싸고 국가와 사회 사이의 경쟁이 존재하겠지만, 사회의 자주성 강화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자주성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활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를 국가의 대립체로만 취급하는 이념적 경향을 탈피한다면,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중국시민 사회에 대한 연구가 개념적 논쟁이나 역사적 논쟁에 제한되었던 것을 극복하고 현재 중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 특히 자주적 사회공간을 형성하는 주체들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논의와 시민사회의 등장을 살펴보고 그 분석도구로서 중산계층의 형성과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중국의 시민사회 개념 논의

중국의 시민사회³⁾ 존재 여부와 성숙의 정도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민사회는 현재 학술문헌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 매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여전히 느슨한 상태로 있다. 따라서 그 쓰임새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사회를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억압적 국가에 저항하고

3) 중국근대사 전문가인 두아라(Duara)는 시민사회를 “공공문제에 대한 논의와 그 자체의 자율성을 지키는데 참여하는 자율적 결집의 영역” 정도로 제한해 쓰면서 그 ‘자율성’ 조차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변화시킬 수 있는 비국가적 자율세력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 대해 논의를 후자의 경우에 국한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에서 Civil Society는 시민사회, 공민사회, 민간사회 등으로 번역되고, 이러한 사회영역의 주체로서 비정부조직, 비영리조직, 제3부문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⁴⁾

서구에서 도입된 Civil Society라는 개념의 중국적 해석은 그 의미가 지니는 다양성과 논의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公民사회, 民間사회, 市民사회로 불리어진다. 서구학자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시민사회 논의는 보편적 개념과 성격의 중국적 적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비교적 적은데 비해 중국학자들은 Civil Society라는 외래적 용어를 번안하는 작업에서부터 중국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개념 지우고 성격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선행하였다. Civil Society를 공민사회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Civil Society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강조보다 공적영역에 대한 강조에 주의를 기울인다. 실제로 Civil Society 개념은 1980년대 들어서 다시 부활한 분석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크게 공헌한 것이 1980년대 말 동유럽의 반체제 운동이다.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하는 사회조직의 세력화에 대한 경험적 사례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공적영역에 참가하는 공민으로서 주체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 영역의 주체인 공민을 강조하는 공민사회로 Civil Society를 명명하게 된 것이다. Civil Society를 민간사회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로 대만의 중국학자들에 의해서인데 이는 두 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대만의 국민당에 대한 민주화 과정에 국가권력에 반하는 사회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사회로 명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民反官’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을 관료적 관념으로 새롭게 해석해 관료적 성격에 대항하는 민간사회의 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4) 이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이념논쟁을 유발하여 연구나 조직활동에 제약을 가할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의 공민사회, 민간사회 두 유형과 구별되어 중국 대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시민사회이다. 중국에서 시민사회로 명명되는 Civil Society라는 이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시민사회가 국가-사회관계에서 사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쓰였으며 중국의 현대화된 거대 생산체제와 발달된 시장 경제체제를 기초로 건립된 영역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한 국가로서 현대화된다는 것은 시민사회라는 자율적인 사회 구성체가 충분히 인정되고 보장되는 근대적 국가형식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사회가 시장을 매개로 개인의 자유화 합리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자율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조직을 특징으로 한 사회구성원 간 무리생활의 교류방식과 생존양식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를 '公共領域'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의 역량을 증강시킬 수 있고 개인에게 국가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며 국가를 제어하는 중심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개념의 또 다른 내용은 시민사회의 내재적 요구에 대한 것으로 시민들 스스로가 자치적이어야 하고 경제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자체적 관리가 가능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개념에 관한 논의는 현대적인 국가 현실에서의 시민사회의 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에서 시민사회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첫째, 경제적 측면의 시민사회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기초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관계가 주로 경제활동 중의 각종 물질적 이익관계로 표현되는 사회를 일컫는다. 아직 중국에서 시민사회가 그 적극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입장에서 경제영역에서라도 광범위한 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의 경쟁기제를 통한 시민사회의 일차적 성격 형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시민사회의 성

격에서 사회자원의 유동과 사회분화를 기초로 한 시장경제에 내재된 평등한 계약적 관계를 강조한다. 사회변화와 더불어 사회의 구조적 분화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활동에 종사하게 되고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게 되므로 사회전체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는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국가권력과 관련을 가지며 민주화 논의와 연관되면서 체제전이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성격에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분은 양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시민사회에서 강조되는 영역의 구별은 시민사회의 성격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의 역할과 비중이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민사회 성격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어 지는데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서방의 시민사회가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단순한 대립 내지 대항의 관계는 아니라는 중국에서의 보편적 인식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시민사회가 건립하려고 하는 영역이 사회와 국가 쌍방에게 만족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김도희 2002, 47-5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시민사회도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시민사회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권과 권리가 중국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더불어 정치적 자유의 표현과 결사체를 통한 집단적 의사관철이 어느 정도 용납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개인들의 등장과 결사체의 등장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면중의 하나이다.

둘째, 시민사회를 부르주아 사회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자산계층 또는 중산계층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부르주아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의미의 화

이트 칼라⁵⁾ 계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가하는 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비록 이들이 정치적 자유나 대표권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시민사회에서 공론의 역할을 중시한다면 중국에서 공론의 마당이 있으며, 이 장을 이끌어 가는 주역들은 누구이며, 또한 어떤 주제가 공론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가? 공론은 다양한 형태의 루트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들이 과연 있는가하는 점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를 17-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경험에서 형성된 역사적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⁶⁾ 중국적 역사 상황에서 형성된 시민사회는 어떤 뚜렷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하는 것은 이 글의 또 다른 문제의 식이다.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개념은 시민사회 개념보다 지역적, 역사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의 시민사회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중국 시민사회는 반국가적이기보다는 국가 친화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단순한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 부르주아적 시민사회와는 달리 지식인이며 문화적 공론 형성의 장의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며 또한 지역적 기반에 토대하고 있으며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

5) 여기서 화이트 칼라는 주로 관리 혹은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집단이다.

6) Jürgen Habermas, Trans. by Thomas Burger,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 MIT Press, 1989) p. xvii-xviii.

Ⅲ. 개혁개방이후 시민사회의 형성

중국 시민사회의 과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학가들에 의하여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면 정치학자들의 관심은 중국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의 등장을 개혁개방 이후로 잡으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개혁개방 정책과 시민사회의 관계, 천안문 사태에 대한 해석, 중국이 나아갈 방향으로써 시민사회 등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논의를 출발시킨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자들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시민사회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으며 천안문 사태가 대표적인 시민사회의 정치화로 볼 수 있음을 제기한다. 이들 논자들은 시민사회의 주동적 위치 확보를 인권과 자유의 신장으로 이해하며 곧 민주화로 연결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나친 권력을 비판하는 견제 세력으로서 시민사회를 제시한다. 이러한 시각은 장개석 정권의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도구로서 시민사회를 받아들인 대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만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관(官)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민(民)에 주목하여 시민사회를 ‘민간사회’로 번역하며 견제와 비판을 중시한다(鄧正來 1997, 48-85).

그러나 중국 대륙의 사정은 다르다. 대륙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항하는 의미보다 헤겔적인 의미에서 중립적이고 선한 국가 권력 아래에서 온갖 사회·경제적인 갈등을 스스로 처리하는 하위 단위로써는 관념이 강하다. 국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시민사회가 처리하지 못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신을 높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혁개방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의 개념으로 중국사회를 접근할 경우 우리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인 서구 시민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시민사

회가 스스로의 창의성, 자율성, 다원성, 민주성에 의거하여 중국을 이끌어간다고보다는 당과 정부가 앞서서 개혁개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사회적 자율성, 자유로운 시장경제,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지식인 주도의 공론이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서구사회가 겪은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 현실의 특수성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갈 때 미래가 있다”⁷⁾는 말처럼 중국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적 특성을 우리는 지배계층이자, 공론계층이자, 자산계층인 사대부의 개념을 살려 ‘사대부적 공공영역’으로 불러보고자 한다. 사대부 계층은 역사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토지계급이며 독서층이었다. 중앙정부는 이들의 힘을 빌려서 국가 관료의 힘이 미치지 않는 사회 저변까지 통치할 수 있었다.

중국의 시민사회 또한 국가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게 하는 하나의 통로 또는 전달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정부정책의 ‘전달벨트’ 역할에 그치던 다양한 결사체들의 경우에는 역할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개혁개방이전까지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통제는 지배적이었으며 개혁개방이후 완화되는 경향성을 보이나 아직까지 협회는 아래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통제하에 있다. 어떤 사회집단이던지 국가로부터 공식적 승인을 받고 국가의 감독하에 놓이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하여 성립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귀속부문 또는 단위에서 협조를 끌어내어야 하는데 이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재정적, 물질적, 사무공간, 관시(關係), 정치행정적 접근 등 다방면에 걸쳐서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⁸⁾

7) 鄧小平,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95頁.

8) White Gordon, "Prospects for civil society: a case study of Xiaoshan

중국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의한 사회의 통제 및 관리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면이 강하다.

첫째, 국가기구와 단체 회원들 사이에 통신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통치이념과 구체적 정책을 단체 회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들의 경우에는 초보적이기는 하나 자신들의 관심과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된다.

둘째, 시민단체들은 비조직화된 경제 주체들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는 이들을 쉽게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든다면 지역정부는 시멘트 제조협회를 통하여 시멘트의 생산량과 질량을 일정수준 유지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경제 단체들은 이전에 국가기구가 전담하던 일들 가운데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개체호 및 사영기업협회를 통하여 국가는 세금징수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준단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의 무질서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종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협회의 주최하에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협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경제개혁 이후 형성된 자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형성토대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이 공간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는 국가라 하겠다.

따라서 중국 시민사회는 지금도 형성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기능보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통제와 관리

city," in David S.G. Goodman and Beverley Hooper, *China's Quiet Revolution: New Interac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p.206.

가 강조되면서 국가권력이 사회의 저변에까지 침투되는 통로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사회의 자유화는 자율적, 다원적, 자유영역인 시민사회 공간을 보다 확장시킬 것이며 강화된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에 대한 경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중국의 중산계층과 시민사회

1. 중국의 중산계층이란

중국 시민사회 가운데 비교적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대륙 중산계층⁹⁾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구)중산계층은 보통 간부, 보통 지식분

9) 리창(李强)과 조유사홍(周曉虹)이 말하는 중산계층은 중간적 위치란 의미의 중간계층이라기 보다는 개혁개방이후 새로이 형성하거나 이전에 존재했지만, 형태가 다소 변화한 고소득층에 가깝다. 중국 내에서는 왕잉(王穎) 등은 “사회중간층(社會中間層)”이라는 개념으로 증가하는 사회조직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시장화, 현대화에 따라 자발적인 사회조직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 사회조직들은 국가와 민간 사이에서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王穎 등, 1993). Zhang은 매개자 모델(intermediary model)을 가지고 일정 영역에서 자주성을 갖게 된 사회조직들이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사이의 공간을 매개한다고 주장하였다(Zhang 1997).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조합주의(corporatism)적 접근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Unger and Chan 1995; Pearson,1999). 이상의 접근법은 모두 국가가 자신으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가는 사회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통로 혹은 수단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 영역의 형성과 발전을 관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1980년대 사회-중심적 관점을 비판하며 국가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한 Evans, Rueschemeyer, Skocpol 등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국가-중심적 경향의 영향을 받았다(정중호 2000).

자, 국유기업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들이 1980년대 이후의 개혁개방정책이 초래한 산업구조의 변화, 즉 중공업·제조업에서 신흥 하이테크로 산업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몰락한 대신에, 신중산계층이 성장했다.

중국에서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에 대한 정의는 “안정된 수입이 있고 자력으로 집과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수입의 일부를 여행이나 교육에 소비하고 대부분의 가정은 휴대전화, CD플레이어, 비디오 CD플레이어, 텔레비전, 게임기, 카메라를 소유하는 그룹을 가리킨다.” 여기에 실제의 경제 생활조건이 ‘중산계층’이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과거나 주위에 비교해 생긴 일종의 자기평가를 가리키는 중류의식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중산계층은 중간계급과 중류의식을 가진 전부를 포함하게 된다.¹⁰⁾

과거 30년간 급속히 확대되어 도시부와 연해부에 집중 거주하는 특징을 가진 그들은 교육 수준이 높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먼저 낙관론을 보면, “중산계층이 증대하고 빈곤인구가 중산계층에 흡수되면서 그들이 중국의 정치나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추세는 시민사회의 형성을 강력히 촉진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고 전망한다(朱建榮 2002, 13). 말하자면 “중국은 이제 시민사회의 입구에 도달”하여 그로 향하는 준비단계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중산계층의 확대, 납세제도의 도입과 ‘납세자 의식’이 정착되고 공산당지도부의 통제력 약화 등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일극구조에서 정치·경제·사회영역이 권력을 삼분하는 다극

10) 여기에 신흥부자라고도 불리는 고소득자를 따로 구별해 보면, 일부의 신흥 산업(금융증권, 정보산업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에 집중된 사영기업경영자, 외자계 기업이나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고급직원, 부동산업자, 일부의 개인경영자, 일부 국영기업의 청부업자나 기술을 갖고 경영에 참가하는 자, 유명한 배우나 가수 등 스타, 모델, 작가, 스포츠 선수, 일부의 변호사, 브로커, 회계사, 유명한 경제학자, 정부의 국장급 간부, 일부의 불법경영자(밀수, 매춘), 소수의 부패인사 등이 해당된다.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朱建榮 2002, 26-27).

이와 달리 비판론에서 보면, 중국에서 중산계층이 형성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된 원인은 중산계층에 의해 점유되어야 할 자원이 “총체적 자본(문화자본, 정치자본, 경제자본을 장악한 총체적 자본엘리트집단)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다”(何清漣 1998, 352). 따라서 “사회의 중간조직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조직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역할은 시민사회 같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기능 행사를 대표할 뿐이다(何清漣 1998, 350).

이 같은 대립되는 시각이 병존 내지 교차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면 급속히 발전 변화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양극단적인 현상이나 데이터가 동시병존하게 마련인 거대한 중국이란 특징으로 돌리는 것도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양극단을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 요즘 주목되는 중간조직인 사단(社團)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 일반적으로 지목되는 공공성과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¹⁾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치체제상의 통로는 행정관료기구와 기초적 사회조직인 ‘단웨이(單位)’이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개체호나 사영기업의 출현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출현을 전자가 다 감당 할 수 없고, 후자는 주관기관의 분할과 동류 구성원간의 횡적 연결의 결핍으로 인해 구성원의 다양한 관심을 수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단이 ‘제3의 통로’로 중시되고 있다.

여기서 사단이란 정부에 등록된 단체를 가리킨다. 이것은 사단의

11) 아시아 시민사회 비교연구 방법론을 모색한 조효제 2000년도 연구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구성요소에는 자발성, 시장과 대비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 시민의 능동성, 공동선, 공공성, 공적인 포럼, 결사체적 삶의 방식 등이 있다.

활성화가 정부의 사회단체의 자율화촉진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뤄진 사정을 주목하게 된다. 개혁개방이후 경제적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다양화를 당과 정부가 직접 장악하려면 예전처럼 업무주관단위와 밀접하게 연계시켜 사실상 당,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정부를 보완하는 ‘중개조직’으로 사단을 중시했다(이남주 2003, 252). 다른 한편으로 사단의 활성화가 정치의 자유화나 권력의 다원화를 촉진시켜 ‘대사회’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사단은 ‘통제와 자율의 딜레마’에 대한 처한 중국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의 향방이란 큰 문제의식에서 사단을 조명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사단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각에서 사단의 역할을 다시 보면(王穎·孫炳耀 等, 85-136), 사단은 구성원에게 개개인에게 그들 개인보다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한 새로운 사회보호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인의 일상생활의 기초 사회조직인 단위와 달리 사단은 동류의 구성원간의 조직으로서 단위의 경계를 넘어서 동류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역량을 대표하는 조직이므로 여론에 호소한다든가 당·정부와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이 정부와 벌이는 협상은 기본적으로 사단의 지도부가 정부와 여러 가지 연결장치를 마련해 접근하는 형태를 취한다. 물론 사단의 유형별 구별 즉 관주도형(官主導型)이나 반관반민형(半官半民型)이나 아니면 민간주도형(民間主導型)이나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 형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단의 주류적 형태인 반관반민형의 경우 지도부 일부가 인민대회나 정치협상회의 등 정치 기구에 참여하거나, 관련부서의 정책 자문에 응하는 방식이 흔히 이용된다. 바로 여기서 ‘관시(關係)’가 중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대사회’를 예상 할 수 있는 근거인 사단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연결망인 관시가 활용되는 현상은 사단의 일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¹²⁾

2. 중산계층의 성장과 변화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계층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왔으며 그 가운데 중산층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중산층은 사회변동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듯이 중국에서도 중산층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중산층은 여전히 가장 주목 받는 계층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¹³⁾

그런데 중간적 위치의 계층과 관련하여 중간계급, 중간소득계층, 중간계층, 중산층 등 다양한 개념이 사용된다.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단순히 중간소득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복합적 기준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의미의 중산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중산계층의 확대를 논하고 있다.

중산계층의 증대는 주체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층구조의 변화가 그만큼 중국 시민사회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계층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2) 두비엔강(渡變剛)은 이 같은 특징을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론'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13) 李强, 『轉形時期中國社會分層』, 沈陽: 療寧教育出版, 2004. 글에서는 중간계층이 아니라 중산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중산계층의 비중을 적게 잡고 있으며 중국 취업인구의 13%에 이른다고 보고 있으며 周曉虹, 『中國中產階層調查』,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p.5-6에서는 중산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20% 정도 되며 리창과 조우샤옹이 말하는 '중산계층'은 중간적 위치란 의미의 중간계층이라기 보다는 개혁개방이후 새로이 형성되거나 이전에 존재했지만 형태가 다소 변화한 고소득층에 가깝다.

다음 <표 1>은 중국 중산계층의 직업군과 계층의 분포를 보여준다. 중국의 사회계층 분포는 중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진국형은 아니지만 상층 3.6%, 중간층 49.3%, 하층 47.1%를 이루고 있어 종형(鐘形)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陸學藝 編 2002, 2004). 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농업노동자는 1978년 67.4%에서 44%로 감소하였으며, 구중간층인 중소기업의 사영기업주, 자영업자와 신중간층인 전문기술자, 경리(manager), 행정관리자, 사무직, 상업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개혁, 개방 직전인 1978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¹⁴⁾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성장동력이 지속하는 한 일정시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중국의 10대 사회계층 및 분포¹⁵⁾

5대 사회경제계층	해당직업	10대 사회계층	분포(%)
上層	고위지도급간부/대기업경영자 대사영기업주/고급전문기술인	국가 및 사회관리자 계층	2.1
		전문경영자 계층	1.5
中上層	중간지도급간부/대기업중간간부 중소기업경영자/중간전문기술인 중규모기업주	사영기업주 계층	0.6
		전문기술인 계층	5.1
中中層	초급전문기술인/소기업주 사무직/개체호/농업경영자	사무직 계층	4.8
		개인경영자 계층	4.2
中下層	개체노동자 일반 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노동자, 농민	상업 및 서비스업 계층	12.0
		노동자(工人) 계층	22.6
底層	농업 노동자 실업 및 반실업 계층	농업노동자 계층	44.0
		실업 및 반실업 계층	3.1

*출처: 陸學藝 主編, 2002,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와 서진영, 『서진영 교수의 중국정치 06-14장』 미출간자료에서 재인용.

14) 陸學藝(편), 유홍준(역), 『현대중국 사회계층』, 서울: 그린, 2004. p.65-68.

15) 현재 중국에는 중산계층, 중산계급, 중산계층, 중산계층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범위도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어떤 정의를 사용하더라도 이 계층은 개혁개방이후 확대되고 있는 계층임이 확실하다.

또한 <표 1>은 중산층의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계층의 분화 또한 보여주고 있다. 즉 전통적인 사회계층인 농민과 노동자, 지식인 계층이 분화하여 10개 계층으로 분화되었고, 공산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형성하였던 농민과 노동자 계층이 사회의 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계층의 분화 및 유동성의 증가는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 시키고 다양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중국의 중산계층의 규모와 정의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¹⁶⁾ 시민사회의 상태분석에 있어 계층구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산계층의 형성여부가 시민사회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토대일 뿐 아니라, 중산계층의 형성은 한국 등의 민주화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민주화와 일정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산층의 확대는 시민사회가 나고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할 것인지만, 중산층의 이중성이 상충하는 바, 이들이 체제이행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체제의 유지와 공고화에 기여할 것인지는 시대적 맥락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문 사태로 촉발된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과연 중국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라는 매우 원론적이고 초보적인 연구를 뛰어 넘어 현재는 다양한 시론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16) 중간 계급의 기준을 직업, 수입, 소비생활 방식, 주관적 인식의 차원에서 설정하고,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진정한 의미의 중산계급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중산계급은 전체 인구 중에서 4.1%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서진영, “서진영 교수의 중국정치 06-14장”, 미출간자료에서 재인용.

V. 맺음말

지금까지 과연 ‘중국에 시민사회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시민사회 개념과 중산층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중국시민사회 발전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하여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시도하기보다는 “중국의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돕는 촉진요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물 제거와 촉진 요소 개발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국가나 시장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확장이 중국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공선의 확장을 가져오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라면 시민사회의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정치권, 언론과 재벌은 시민사회를 포섭과 회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민주주의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와 협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보면 당분간은 ‘종속적 발전’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언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중국공산당 정치개혁에 대한 태도, 국민 권리의식의 정도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가로부터 받는 제약이 아직 크지만,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이 차츰 약화되어가고 시민사회의 능동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 시민사회 발전은 이러한 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상당부분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도희, 2002,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논의의 쟁점과 함의」, 『중소 연구』 제26권 제 2호, 한양대학교 아태연구센터.
- 김영진, 1998,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 으뜸출판사.
- 리 단, 2006, 「중국 기층조직 정치참여와 전개와 발전」, 『21세기 사회과학의 이슈: 동북아 신국제질서 중국 발전 패러다임 코리아 디아스포라』, 2006년 합동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 박광득, 2004, 「중국 촌민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1권 3호.
- 백승욱, 2001,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단위체제'의 해체』, 문학과 지성사.
- 백영서, 2004,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사회문화 변동: 전통사회의 해체와 시민사회의 성장」, 『동아연구』 제46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 비평.
- 박윤철, 2000, 「중국 개혁개방 후 국가와 사회의 재구조화: 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中蘇研究』 제24권 제4호, 한양대학교 아태연구센터.
- 박홍순, 2008, 「지역과 시민사회의 창조성에 투자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장의 입장에서」, 『지방행정』 제57권 65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이남주, 2003, 「개혁개방 이후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추세와 전망: 중국 민간조직 발전을 중심으로」, 아르케.
- 이동진, 2000, 「중국 체제 개혁과 변호사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민자, 2009,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중국 특색 시민사회”」, 『중소연구』 제32권 4호, 한양대학교 아태연구센터.
- , 2001, 「중국의 시민권 제한정책과 농민공의 동화: 북경과

주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 한국정치학회.

이정남, 2005,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성홍, 2000,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연구」, 『중국 정치 연구론』, 나남출판.

정중호, 2000, 「중국 '流動人口'와 국가-사회 관계 변화」, 『비교문화연구』 제6집 2호.

조수성, 2001, 「정치변동 하의 베이징 후통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1호, 한국정치학회.

조효제(편역), 2000, 『NGO의 시대』, 창작과비평사.

하도형, 2003, 「중국의 시장전환기 사회단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모델의 모색: 중국기업연합회/중국기업가협회를 사례로」, 『2003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

戴茂堂·江暢, 2001, 『傳統價值觀與當代中國』,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鄧正來, 1997, 『國家與社會: 中國市民社會研究』,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韓健鵬·周琳, 1999, 「全球化條件下中國改革開放的反思」, 『世界經濟與政治』, 第7卷.

何清漣, 1998, 『現代化的陷阱: 當代中國的經濟社會問題』, 今日中國出版社.

胡錦濤, 2008, 「繼續把改革開放偉大事業推向前進」, 『求是』, 1: 3-5頁.

胡錦濤, 2003, 「在三個代表'重要思想理論研討會上的講話」, 『青海學刊』, 4: 4-8頁.

江流·陸學藝·單天倫(主編), 1996, 『社會藍皮書 1994-1995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強, 2004, 『轉形時期中國社會分層』, 沈陽: 療寧教育出版社.

錢健軍 編, 1993, 「中國大陸的 '第三勢力」, 『行政院大陸委員會報告書』.

孫炳耀 等編, 1993, 『社會中間層: 改革與中國的社團組織』, 中國發展出版社.

王名等, 2001, 『中國社團改革-從政府選擇到社會選擇』,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王穎·折曉葉·孫炳耀, 1993, 『社會中間層: 改革與中國的社團組織』, 中國發展出版社.

王穎·孫炳耀 等, 1993, 『社會中間層』, 中國發展出版社. 1993, 『中國單位制度』, 中國發展出版社.

徐貴權, 2007, 「改革開放以來中國社會價值觀變化之研究透視」, 『毛澤東鄧小平理論究』, 6.

俞可平, 2003, 「全球化與中國政治發展」, 『東亞研究』, 第44輯.

——, 2002, 『中國公民社會的興起與治理的變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周翼虎·楊曉民, 1999, 『中國單位制度』, 中國經濟出版社.

朱英, 1994, 「關於中國市民社會的幾點商榷意見」, 『中國社會科學季刊』, 香港, 總7期.

Brook, Timothy and B. Michael Frolic, 1997, *Civil Society in China*, Armonk, N.Y.: M.E. Sharpe.

Du, Weiming(杜維明), 1996,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Evans, Peter,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ldman, Merle, 1994, *Sowing the Seeds of Democracy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1981, *China's Intellectuals: Advise and Diss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Goodman, David S.G. and Beverley Hooper, 1994, *China's Quiet Revolution: New Interac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New York: St. Martin's Press.

Goodwin, Robert, 1992, *Green politic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Grieder, Jerome, 1981, *Intellectuals and the State in Modern China*, New York: Free Press.

Habermas, Juergen, Trans. by Thomas Burger,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geois Society*, Cambridge MA: MIT Press.

Hamrin, C. and T. Cheek, eds., 1986, *China's Establishment Intellectuals*, Armonk, N.Y.: M.E, Sharpe.

He, Baogang, 1997, *"The Democratic Implications of Civil Society in China*, N.Y.: St. Martin's Press.

—————, 1995, "The Idea of Civil Society in Mainland China and Taiwan, 1986-1992, *Issues & Studies*, June 1995.

Huang, Philip C, 1993, "Public Sphere / Civil Society in China?: The Third Realm between State and Society", *Modern China*, Vol. 19, No. 2.

Jeong, Jong-Ho, 2000, *"Renegotiation with the State: The Challenge of Floati Population and the Emergence of New Urban Space in Contemporary China*, Yal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Jüergen Habermas, Trans. by Thomas Burger,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geois Society, Cambridge MA: MIT Press.

Martin K. Whyte, 1992, "Urban China: A Civil Society in the Making?," in Arthur Lewis Rosenbaum (ed.) *State and Society in China: The Consequences of \Reform* Westview Press: Boulder, Sanfrancisco, Oxford.

Oi, Jean C, 1995, "The Role of the Local State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y", *The China Quarterly*, No. 144, December, pp. 1132-1150.

—————, 1989,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The Political Economy of Village Govern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earson, Margaret M. 1999, *China's New Business Eli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ei, Minxin, 1998, "Chinese Civil Society: An Empirical Analysis", *Modern China*, Vol. 24, No. 3.

Perry, E, 1992, "Casting a Chinese 'democracy' movement: the roles of students, workers and entrepreneurs," pp. 146-164 in Jeffrey N. Wasserstream and Elizabeth J. Perry (eds.), *Popular Protest & Political Culture in Modern China: Learing form 1989*, Boulder CO: Westview.

Popper, Karl R, 이명현 (역), 1983, 『열린 사회와 그 적들 II』 서울: 민음社.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ye, Lucian, 1981,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and Hain.

Rosenbaum, Athur Lewis, 1992, *State and Society in China*, Boulder, San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 Shimmitter, Philippe C, 1974, "Still the century of coporatism?" in Fredrick B. Pike and Thomas Stritch (eds.), *The New Coporatism: Social-Political Structures in the Iberian Worl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Unger, Jonathan and Anita Chan, 1995, "China, Coporatism, and the East Asian Model,"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Jan 1995.
- Wang, Y. W, 2007, "Seeking China's New Identity: The Myth of Chinese Nationalism", 『비교문화연구』, 11권 1호.
- White, Gorden, 1996, *In Search of Civil Society: Market Reform and Social Change in Contemporary China*, Oxford: Charendon Press. 1994, "Prospects for civil society: a case study of Xiaoshan city," in David S.G. Goodman and Beverley Hooper, *China's Quiet Revolution: New Interatc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New York: St. Martin's Press.
- Zhang, Yunqiu, 1997, "An Intermediary: the Chinese Perception of Trade Union since 1980s", *Journal of Trade Union*, Goldman, Merle, *Sowing the Seeds of Democracy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Vol. 14, No.4.

Contemporary Opinion About Current Civil Society in China

Choi, Jeong-jin
(Hannam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 civil society through an analysis of conceptual discussions about civil society and the rol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class.

Civil society in China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supervision and social control imposed by government. First, civil society provide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the communities' members. Second, government can control unorganized economic participants because civic groups bring them together. Third, social and economic communities are going to carry out some functions which government agencies normally take charge of. As a result, government can expect a cost-saving effect. Fourth, for their members, the communities can take a role of government agencies that seem not to be related to them. That is to say that civil society in China is evolving.

However it justifies and supports the policies of political parties and government ideology. These two functions are emphasized. Following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China, one of the important changes was the growth of the middle

class. This growth has brought differentiation as well as expansion of the middle class. Liquidity growth and differentiation of social strata operate as positive factors for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because they promote the pluralization and diversity of society.

In today's China, the middle class is steadily increasing, intervention by government is declining, and the space in which this emerging middle class can be both active and effective is still evolv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civil society depends on how well this space is defined and used.

Key words : Chinese civil society, Middle class, Development.